

세계적 양산의 환경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KIA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18일 청백전에서 이종범이 도루하고 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태풍’되어 돌아온다

청백전서 3타수 2안타 1도루 ‘부활 신호탄’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KIA타이거즈 ‘V10’을 위한 선봉에 나선다.

18일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가하마 구장에서 진행된 자체 청백전에서 이종범은 3타수 2안타, 1도루를 기록하며 3-1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종범은 1회초 첫 타자로 나서 임준혁을 상대로 우중간 안타를 기록하며 팀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강동우의 안타와 이현곤의 2루타로 홈을 밟아 팀의 첫 득점을 기록했다.

5회 초에는 상대투수 박정규에게 2루타를 뽑아내며 포볼로 출루한 김선빈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1타점을 기록한 이종범은 가볍게 3루 베이스를 훔치면서 도루도 하나 기록했다. 6회 말 마지막 백업의 공격에서는 우중간으로 날아가는 최희섭의 큼직한 타구를 잡아내며 호수비를 선보이기도 했다.

전날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던 이종범은 이날 공·수·주에서 모두 활약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조범현 감독도 이종범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외야에서 기대되는 선수를 묻는 질문에 조범현 감독은 주저없이 이종범을 꼽았다.

조범현 감독은 “지난 가을 마무리 캠프 때 타격 훈련도 많이 소화하고 스텐스도 즐겼다”며 “전지훈련



18일 자체 청백전에서 3타수 2안타, 1도루를 기록하며 부활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종범이 경기 전 타격연습을 하고있다.

에 그 결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전 외야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쉽지 않은 않다.

지난해 부상으로 고전했던 이용규가 무서운 기세로 페이스를 찾아가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발이 빠른 김일섭도 전날 청백전에서 3루타를 포함해 3타수 2루타의 맹타를 선보였다.

노장 심재학도 이날 시원한 2루타를 선보이며 회복세다. 노련한 강동우와 최경환도 KIA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주전 경쟁에 뛰어들었다. 신인선수까지 가세했다. ‘악마리’ 나지완은 전날 홈런포를 날리며 화끈한 타격을 자랑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허구연 해설위원은 “KIA가 전력보강을 하면서 4장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이상의 성적을 위해서는 최희섭·서재응과 함께 최고참인 이종범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 야구의 조범현 감독이 촘촘한 선수 구성을 통해 올 시즌을 준비해 놓은 만큼 우승 경험이 있는 이종범의 노련미가 덧붙여진다면 ‘V10’을 위한 항해는 순탄하게 진행 될 전망이다.

외야를 호령하며 우승을 이끌어 나갈 백전노장 이종범의 활약을 보고싶어하는 팬들의 갈망을 그가 얼마나 채워줄 지 관심이이다. /wool@kwangju.co.kr

◀南 박주영 vs 정대세 北▶

“남북축구 지존 가리자”

다시 살아난 ‘축구천재’ 박주영(23·FC서울)과 거침없는 ‘북한의 에이스’ 정대세(24·가와사키). 동아시아축구 최고의 골잡이는 과연 누구일까. 남북 축구대표팀은 20일 오후 9시45분(이하 한국시간) 충청 올림픽스포츠펀에서 열린 2008 동아시아선수권대회 2차전에서 맞붙는다.

동아시아축구선수권 2차전

내일 밤 9시45분 남북 대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서 한 조에 속해 ‘월드컵 전초전’ 성격을 띄고 있는 이번 경기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의 최전방 공격수인 박주영과 정대세의 활약이다.

박주영과 정대세는 중국 충칭에서 열리고 있는 2008 동아시아선수권대회 첫 경기에서 나란히 골 맛을 봤다.

박주영은 17일 중국과 1차전(3-2 승)에서 두 골을 뽑았고, 정대세는 이어 열린 일본전(1-1 무승부)에서 선제골을 터뜨렸다.

박주영은 독일월드컵을 앞둔 2006년 3월1일 양골라와 친선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뒤 오랜만에 A매치에서 득점포를 날렸다.

특히 ‘공한증(恐韓症) 타파’를 외치던 중국의 꿈을 깨트리는 결정타가 된 후반 20분 프리킥 동점골은 박주영이 제 기량을 거의 회복했음을 보여

준 장면이었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활약 중인 재일교포 정대세도 첫 관부터 참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81cm, 80kg의 다부진 체격에 머리까지 짧게 밀어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의 정대세는 현란한 드리블과 빼어난 스피드, 날카로운 슈팅력까지 겸비했다.

특히 등을 지고 돌아서며 상대를 따돌리는 플레이는 일본 수비가 앞에서도 번번이 당했다.

경기를 지켜본 허정무 한국 대표팀 감독이 “볼을 잘 찰 아는 선수”라며 높이 평가했을 정도다. 일본 아이치현 출생의 정대세는 안영학(수원), 양용기(센다이)와 함께 북한대표팀의 재일교포 3인방 중 한 명이다.

일본 조산대 체육학부를 졸업하고 2004년 센다이에 입단해 일본 프로축구 무대에 발을 들인 그는 2005년 가와사키로 옮겨 꿈에 그리던 J-리그로 데뷔했다.

2006년에는 3골 밖에 넣지 못했지만 지난 시즌엔 24경기에서 12골을 뽑아냈다. 지난해 6월 마카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선 3경기에서 8골을 몰아쳐 득점상까지 받았다.

정대세는 허정무 감독이 K-리그 전남 드래곤즈를 이끈 지난 4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전남 골문에 두 골을 꽂아넣어 3-0 완승을 이끈 기억이 있다.

정대세의 활약에 허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맛보아야 했다.

박주영은 남북 대결에 대해 “아시아권 팀들의 수준은 다 비슷하다. 우리가 좀 더 뭉치고 좋은 플레이를 해야 한다”면서 “컨디션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 자신의 실력이 없음을 느낀다”며 일본전에서 추가골을 넣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한 정대세는 “남측도 역시 일본과 같은 실력의 팀이다. 방심하지 말고 힘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연합뉴스

2018년 월드컵 축구 네덜란드·벨기에 공동개최 유치 신청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유례없는 경쟁 구도를 그릴 것으로 보이는 2018년 월드컵축구대회 공동개최 유치 신청서를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했다고 AFP통신이 1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은 이날 네덜란드와 벨기에 양국으로부터 2018년 월드컵 개최 의향을 나타낸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2000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00)를 공동 개최하기도 했던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 따라 2018년 월드컵 유치를 관심을 보여왔던 멕시코, 미국, 잉글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그리스 등과 함께 유치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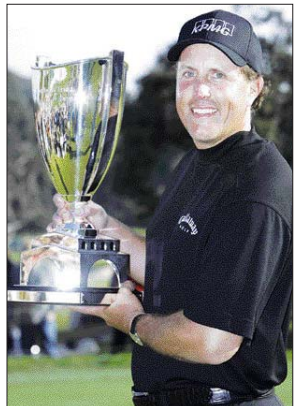
이 대회는 유치 의향국이 모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블라터 회장은 하지만 “네덜란드, 벨기에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관심만 보였을 뿐 공식적으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0년 월드컵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14년 대회는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며 2018년 대회 개최국은 2011년 4월 또는 5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경주 5언더 7위 미켈슨 시즌 첫승 PGA 노던트러스트오픈

세계골프랭킹 2위 필 미켈슨(미국·사진)이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신고했다.



미켈슨은 1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라비에라 골프장(파 71·7천279야드)에서 열린 노던트러스트오픈 4라운드에서 12언더와 272타를 쳐 제프 퀴니(미국·10언더와 274타)의 추격을 2타차로 따돌렸다.

올해부터 نيسان오픈에서 노던트러스트 오픈으로 이름을 바꾼 이 대회에서 미켈슨은 처음 우승트로피에 입을 맞추며 PGA 투어 통산 승수를 33으로 늘렸다.

이 대회 1라운드에서 선두에 나섰지만 이후 뒷걸음질을 했던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최종 합계 5언더와 279타로 공동 7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올 시즌 5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한차례와 톱10 한차례에 입상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반에만 3타를 잃어버렸던 최경주는 후반에 버디 4개를 잡아내며 분전했지만 선두를 따라잡기에는 격차가 너무 컸다.

톱10 진입을 바라봤던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는 1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최종 합계 3언더와 281타로 공동 14위를 차지했다. 나상욱(24·코브라골프)은 3오버와 287타를 쳐 공동 55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 정상 향한 쾌조의 스타트

UAE 36-27 가볍게 제압

핸드볼 아시아남자선수권

한국 남자핸드볼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가볍게 제압하고 제13회 아시아남자선수권대회 첫 승리를 거뒀다.

김태훈(하나은행)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8일 오전(한국시간) 이란 이스파한에서 끝난 대회 조별

리그 B조 1차전에서 UAE를 36-27, 9점 차로 대파했다.

2000년 일본에서 열린 9회 대회에서 우승했던 한국은 그동안 중동 심판의 편파판정에 당하며 쿠웨이트에 계속 우승컵을 내줬는데 이날 승리로 8년 만의 정상 도전을 순조롭게 시작했다.

이어진 같은 조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1차전은 28-28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A조에서는 이란이 중국을 36-28로 잡았고, 쿠웨이트는 바레인을 26-24로 꺾었다.

올림픽야구대표 후보들 내일 집합

베이징올림픽 대표별 플레이오프에 나설 야구대표팀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과 대표 후보 29명은 19일부터 차례로 입국해 20일 오후 5시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 모인다. 이어 22일 오후 1시5분 대만 현지로 떠난다.

예비 엔트리 36명 중 투수 서재응과 내야수 이현곤(이상 KIA)이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하면서 34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제정원삼, 황두성, 조용훈(이상 센테니얼) 등 투수 3명과 내야수 정근우(SK), 손시헌(쌍두) 등 5명은 16일 먼저 대만으로 들어가 현지에서 훈련 중이다.

골프·연호 회원권

특별리 회원권

골프장 시세(1년)	골프장 시세(1년)
관 주 3,500	총 시세 1,700
남관 주 4,400	골드 1,900
클럽900 6,400	도 포함 2,100

상담 문의 (062)351-0095